



##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7

Summary in Korean

### OECD 국가 농업정책: 2007 년 농업정책 감독 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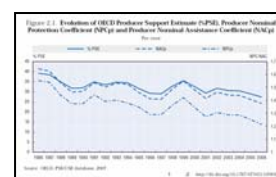
국어 개요

- OECD 농업정책 보고서는 농업정책에 관한 OECD 국가별 분석은 물론 OECD 내 농업부문 지지에 관한 최신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 OECD 지역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은 80 년대 이후로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며 국가마다 큰 차이가 드러남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스위스의 미래 농업정책 추이는 물론 유럽 공동농업정책 변화와 일본 및 한국의 정책개편 등을 다루면서 최근의 농업정책 추이 또한 검토하고 있다.

2006년 농업정책은 세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의 단일직불제에 근거한 국내차원의 개혁은 농업지원의 생산 비연계성 강화로 이어졌다. 한국, 일본은 최근 농업정책의 개혁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반면 미국은 현행 농업법을 대체할 새로운 농업법안을 제안하는 중이다. 상당수 국가가 바이오연료 생산 촉진정책 개발에 나섰다. 도하개발아젠다 차원의 협상 진행은 광범위한 협의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다자간의 무역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OECD 지역에서 농업보조금이 농가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치(%PSE 생산자지지추정치)는 2004-06년 평균 29%로 1986-88년의 38%보다 줄었으며 2006년 %PSE는 27%로 2005년보다 2%p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OECD 전체를 보면 90년대 후반 이래 생산자지지 규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장 최근에는 특정 품목 생산에 연계된 지원방안에서 뚜렷이 탈피하는 등 생산자에 대한 지원 제공 방식에 있어 다소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생산연계 지원방안은 현저한 감소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자 지지 부문의 주를 이루는 요소다. 게다가 명료한 정책목표 및 수혜대상 설정에 기초한 목표지향적 정책 수립에서 이룬 진전은 제한된 수준에 불과했다. 보다 적합한 정책대상 설정은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면서 국내 목표 달성, 효율성 증진,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다.

**도표 2.1.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  
명목보호율(NPCp),  
명목원조율(NAC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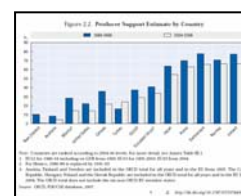
**OECD 농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줄긴 했으나 계속 높은  
지지수준이 특징이다.**

2006년 OECD 생산자지지 추정치는 2680 억불 즉 2140 억 유로로 농가수입의 27%를 차지했다. 2004-06년 농업보조금이 농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88년보다 감소했다. 농업부문의 연구, 시설, 검사, 마케팅, 홍보 등 일반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원액(%TSE)은 2004-06년 OECD GDP의 1.1%로 1986-88년 평균 2.5%의 절반에 못 미친 수준이다.

**각국의 지지수준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지수준은 1986-88년보다 줄어든 상태나 각국마다 지지규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05년 농가수입 대비 생산자지지 비중은 뉴질랜드, 호주가 각각 약 1%, 5%였던 반면 미국, 멕시코 14%, 캐나다 22%, 터키 24%였다. 34%를 기록한 유럽연합은 지지수준이 OECD 평균보다 5%p 높았다. 일본은 농가수입에서 지지 비중이 55%,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는 60%를 상회한 수준이었다.

**그림 2.2. 국가별  
생산자지지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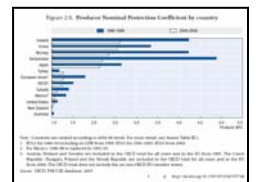
**각국이 지지수준 감소에서 이룬  
진전도는 국가마다 달랐다.**

1986-88 년 이후 농가수입 대비 생산자지지 비중이 최대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1991-93 년 이후), 뉴질랜드였다. 농업지지수준이 높았던 국가 가운데 최대폭 감소를 기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위스, 일본이었다. 모든 OECD 국에서 농업총지원액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으며 터키는 국내산업 중 대규모인 농업분야와 상대로 적은 GDP 가 총지원액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 요소다.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제공  
방식은 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생산 또는 변동투입에 연계된 지원처럼 생산 및 무역을 가장 왜곡하는 지원 유형이 OECD 지역의 생산자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88 년 86%에서 2004-06 년 64%로 감소했다. 생산자 명목보호율(NPC)로 측정된 국내 산지가격과 국제가격 간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든 점을 보아 국경보호조치가 주로 반영된 시장가격지지 같은 생산연계 지원 또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1986-88 년 OECD 생산자가격은 국제가격보다 평균 51% 높았던 반면 2004-06 년 이 차이는 절반으로 하락한 25%였다. 이 가격차가 최대폭으로 감소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도 생산자가격은 여전히 2 배가 더 높으며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다. 가장 왜곡적인 유형의 보조금 축소는 경작지·비활용토지, 가축수, 총수입·소득에 기초한 보조금의 인상을 수반했다. 가장 최근에는 생산 차원에 어떤 요건도 붙이지 않는 지불액 규모가 늘어난 실정이다. 특히 환경차원의 상호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직접지불에 점점 연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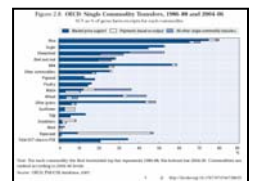
그림 2.6. 국가별 생산자 NPC



**대부분의 지원이 여전히 특정  
품목을 관련하지만 생산자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지지추정치(PSE) 구성요소 중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품목이전(SCT)은 1986-88 년 88%에서 2004-06 년 64%로 그 비중이 줄었다. 단일품목 대상의 이전 지불은 국가마다 상이한 감소세를 이루었다. 우유, 계란, 곡물, 유지종자 부문의 생산자 수입에서 SCP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던 반면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았던 쌀, 설탕 등의 기타 부문은 감소세가 소폭에 불과했으며 SCT, NPC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품목이다. 지난 여러 해에 추진된 농업지원 방식은 품목 일부나 품목 전체를 직불 대상으로 하거나 직불 수급요건에 생산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는 방식을 택하면서 특정품목 생산과 예산지급의 연계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SCT 와 무관).

그림 2.8. OECD: 품목별  
단일품목이전



**2005-06 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수많은 이루어졌으며...**

2003 년 공동농업정책개혁은 2005 년부터 단일 직불제 시행, 2006 년에는 설탕부문으로 동 개혁을 확장하는 등 유럽연합에서 계속 실시되었다. 2007-13 년 농촌개발규정을 새로이 채택한 EU 국가들은 관련 시행사업을

자체 개발하는 중이다. 아이슬란드는 우유 생산에 기초한 보조금 지급을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점점 대체하고 있다(2005-12년). 일본이 새로이 수립한 식량농업농촌지 관련 기본계획은 생산자의 생산결정에 유연성을 부여키 위한 직불제를 2007년부터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정부 추곡수매제 폐지, 직불제 도입 등의 쌀정책 개편과정에 착수했다. 스위스는 우유생산 쿼터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

... 또한 새로운 변화를 고려하는  
중이다

---

2002-7년 농업법의 마지막 해를 맞는 미국은 농업법안을 새로이 계획 중이다. 스위스의 2007-11년 (AP 2011) 신규농업정책안은 품목가격지지 방안을 더욱 벗어나고 있다.

---

농업분야의 다자무역협상은  
재개됐으나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아직 알기 어렵다

---

무역협상 차원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라운드는 WTO 후원으로 계속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도출치 못했던 반면 양자·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협상은 늘어났다. 다자무역협상의 진전은 농업정책개혁 진척에 유인책으로 추가 작용할 것이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